

자연과 도시의 감각적 합으로서의 조경

- 로렌스 헬프린(Lawrence Halprin)의 작품을 중심으로 -

안진희*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들어가며

환경 문제의 대두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시적 역할을 하는 조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담론으로 자연 그대로의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주의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에 조경 작품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는 조경설계는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환경 계획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 이안 맥하그(Ian McHarg)의 이론과 동일시된다(Herrington, 2010: 3). 그러나 과학에 입각한 생태적 조경 계획을 주장하며 그림 속 풍경을 모방한 18세기 영국의 풍경화식 정원을 생태적 개념의 실천이라고 언급하였던 그의 주장의 모호함처럼, 생태 조경은 재현된 표면이 곧 실체이자 본질이 되는 모순을 낳았다. “아직까지 생태적인 고려는 공원의 설계에 의해 어느 정도 자연을 환기시키거나 재현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체로 상징적인 제스처이다”(Lister, 2007: 37). 자연의 외양을 옮긴 조경은 인간의 손길이 닿은 인공적 환경을 부정하며 인간과 환경은 서로에게 영향 받지 않는 대립각에 놓여 있음을 강요한다. 이러한 분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피해 가야 하는 불편함이라고 인식시키는 위험성을 주기도 한다.

18세기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도시의 발달은 여가 생활공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은 도시의 해독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오늘날까지 도심 속 자연은 도시화의 은신처와 피난처로서 작용했으나, 이로 인해 인간의 삶과 자연은 다시 한 번 잔디밭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이 이원론적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며, 필요의 공간인 도시를 건강하게 지속시키기 위한 대립각에 놓인 자연이 아닌 ‘도시만의 생태’가 필요하다. 또한 도심 속에서의 자연 환경의 일상적 경험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표출, 문제의 해소, 그리고 문화의 발생의 장으로서 지속할 수 있는 공공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조경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연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며, 인간의 도시 조건과 뒤섞여 있다”(Meyer, 2008: 214)는 말처럼, 인

간을 환경의 지속을 위해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표현하고 상호 의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서 생태 조경의 미학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에서 논의할 로렌스 헬프린(Lawrence Halprin, 1916-2009)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화한 현대 조경가이다. 헬프린은 도시를 인간이 사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 구축으로서의 조경을 제시한다. 그는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자연의 특성을 형태화하고 이용자들이 경험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느끼게 함으로써 공간에 생태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도시 생태를 구축한 조경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건강한 생태계는 생물학적 균집 이외에도 인간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공간, 녹색, 하늘, 야생화, 나무”를 포함하는 피난처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를 나타내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eardsley, 2009: 28-29).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인식하고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도시에 자연을 감성적·심리적으로 확장한 헬프린의 작업은 도시민의 사회·문화적 완충지로서의 공간이 필요한 현실에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조경 공간이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물리·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측면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에 대한 탐구는 의의를 갖는다.

II. 예술·행동·도시로 확장하는 자연

환경 문제에 대응한 조경 설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로렌스 헬프린은 전후 미국조경 설계를 주도하였으며, 이안 맥하그와 함께 조경의 영역을 넘어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다(김진희, 1993: 103-104). 그는 창조적 설계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RSVP Cycles와 음악의 악보나 무용의 안무 표기법을 환경 설계에 응용한 notation과 같은 조경 설계 방법론의 창시자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측면만으로는 그가 어떻게 “공동체와 지역 사회의 구축과, 광대한 지역을 수용하며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Ross, 2009: 16)을 추구하였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헬프린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관심, 학문적 배경,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헬프린은 “경관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본질적 딜레마”에 대해 “이는 어떻게 인간이 그들의 삶에 적합하도록 만든 환경 속에 자연에 대한 경험을 녹아들게 하는가”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의 외관이 아닌 바람과 물에 의한 부식과 침식, 결빙과 해빙, 빙하와 물결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이 가진 프로세스의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소위 “형태의 생태학”에 귀결하게 된다(Beardsley, 2009: 30).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의 작품 〈포틀랜드 오픈스페이스 시퀀스(Portland Open-Space Sequence, 1970)〉의 핵심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기억하도록 하는 중심 개념이다.

그의 작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가치관은 그가 받았던 교육과 깊이 관련된다. 코넬대학교에서 식물학 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원예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크리스토퍼 터나드(Christopher Tunard)의 『Gardens in the Modern Landscape』을 읽고 환경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터나드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가 재직 중이었던 하버드 설계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고, 이곳에서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와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를 포함한 바우하우스의 선구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들의 사상은 헬프린의 디자인 철학의 근간을 형성한다(김진희, 1993: 108-110). 바우하우스의 자연관은 자연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그것의 최종 수단의 측면에서 포착했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는 인위적인 기교가 과잉된 난숙한 문화 현상에 대한 비판 속에서 단순성과 기능성을 회귀하는 자연 회귀사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승현승 등, 박대순 역 1991: 70-71).

그의 작품 〈포틀랜드 오픈스페이스 시퀀스〉는 그의 모더니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 개로 이루어진 공간 중 〈러브조이 플라자(Lovejoy Plaza)〉는 시에라 산맥의 계곡 경관을 추상화시킨 것이라 스스로 설명하는데, 마치 몬드리안이 구상적인 나무 형태를 평면 그리드로 추상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과 같이 구상적인 자연 계곡과 폭포를 ‘입체 그리드’로 추상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한배, 2001: 59).

자연의 은유적 표현을 위해 그는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1954년 시에라 산맥으로의 첫 번째 여행을 통해 그의 견해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Ross, 2009: 16). 시에라 산맥의 초지, 절벽, 그리고 폭포와 캘리포니아 해변의 습지와와 접촉과 같은 활동을 통해 헬프린은 자연을 감각적·심리적으로 확장하며 인식하였다(Beardsley, 2009: 29). 그는 물의 흐름과 산의 퇴적, 산맥의 형태 구성 등 자연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자연의 조형 원리를 모더니즘의 조형으로 재해석하였다.

자연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루즈벨트 메모리얼(Franklin Delano Roosevelt Memorial, 1997)〉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당시 사회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공간의 주요 매개체로 진화한다. 메모리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물’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표현하고 자연, 건강, 농업적 풍부함을 표현하는 은유적 요소로 사용되었다. 또한 커다란 돌을 겹겹이 쌓거나 여기저기 놓여있는 듯한 커다란 벽천은 전쟁으로 파괴된 지형의 느낌을 준다. 물의 흐름 역시 거친 돌들에 부딪혀 강한 소리를 낸다(오창송, 2000: 147). 헬프린은 공공장소에서 자연을 느끼는 도시민의 휴식 공간을 설계하며, 환경의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설계 방법론을 제시한다.

III. 감성적 치유의 장으로서의 조경

헬프린의 설계는 시민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커뮤니티 공간의 구축을 통해 사용자의 창조적 행동을 촉구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무용가인 그의 아내 안나 헬프린(Anna Halprin)과의 협업에서 가시화되었다. 안나 헬프린은 도시의 일상을 퍼포먼스로 계획했는데, 〈포틀랜드 오픈스페이스 시퀀스〉에서는 도시오픈스페이스가 시민의 도시무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러브조이 플라자〉에서 계획한 “도시에서 가장 무미건조한 ‘기초적’ 움직임 중 하나인 걷기를 안무한 퍼포먼스”(Ross, 2009: 20)는 일상의 행동이 공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미적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간이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일깨우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아름다운 거리가 아름다운 것은 거리의 선을 형성하는 고정된 대상들 때문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리와의 의미심장한 관계성 때문이기도 하다”(Halprin, 1972: 194)는 헬프린의 말처럼, 그의 작업은 공간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이끄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도시의 무대로서의 조경 공간을 창출하였다. 〈러브조이 플라자〉는 안개 속 다양한 높이에서 즉흥의 수영과 일광욕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 무대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잔디 위 걷기, 산책, 일광욕, 수영 등은 하나의 극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는 사회적 상호 작용과 창조적 행동을 고무하고자 하는 그의 설계 의도와 일치한다.

〈포틀랜드 오픈스페이스 시퀀스〉의 작업이 이루어졌던 1960~70년대 미국의 상황과 분위기는 헬프린의 작업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베트남 전쟁, 심화되는 인종과 계급 간의 불안, 그리고 마틴 루터 킹 2세와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같은 사건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가 분위기는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었고,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등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의 급진적 문화 혁명이 일어났다. “기성 사회의 주류 문화에 반대되는 대안적 삶의 방식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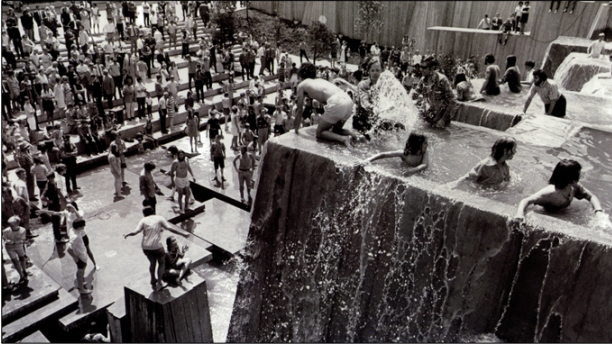


그림 1. 1970년 6월 23일 러브조이 플라자의 개장일 모습

체계를 제시한” 사회 운동으로서의 대항 문화는 청년 세대의 저항과 비판의식의 문화적 표현이었다(김덕호, 2001: 32).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포틀랜드 오픈스페이스 시퀀스>는 60년대 대항 문화의 대중 공연을 위한 도시 무대화도 같았다. 시에라 산맥의 바위 언덕의 특성을 추상화한 <러브조이 플라자>의 형태는 “미국 서부의 험난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문화적 혁명을 심도 있게 구현한 것이었다.”(Ross, 2009: 16). 1960~70년대 미국의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에서 공공 오픈스페이스는 감성적 치유의 장으로서 작용한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국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의 미국을 새로운 수준으로 오르게 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를 기념하고자 만든 공원인 <루즈벨트 메모리얼>은 역사적 인물을 추모하는 공간의 구축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루즈벨트 메모리얼 이전의 기념비적 공간은 대부분 대상의 성격과 관계없이 ‘웅장함’이나 ‘경외심’을 강조한 과장된 스케일의 메모리얼의 형태를 채택하였다. 이 기념비들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신화적 형상을 차용하고, 승전물인 오벨리스크처럼 높게 세우는 수직적 형상과 규모는 보는 이를 압도하게끔 제작되었다”(민지혜, 2010: 55). 기념 대상이나 장소에 대한 차별성의 부재는 어떤 메모리얼이든 비슷한 느낌을 받게 했다.

루즈벨트 메모리얼은 건축적·기념비적 공간이 아니라 경관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얼의 전개 방식의 초점이 ‘기념 대상의 구현’에서, 이용자가 대상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가 하는 ‘방식의 구현’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기존의 것들과 구별된다. 메모리얼과 관람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관람객이 기념비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이로 인해 메모리얼의 의미와 관람자의 교감이 이루어진다. “헬프린은 루즈벨트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각과 부조, 비문 등을 배치한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었다”(김진희, 1993: 129).

우리는 루즈벨트 메모리얼을 설계하면서 경험의 완결을 의



그림 2. 루즈벨트 메모리얼은 관람자를 참여자로 변환시킨다.

도하려 했고, 이는 고립된 심벌로서의 기념 공간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간에 따라 경험하면서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의 창조이다. 우리의 의도는 먼저 시각적인 것보다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적절히 환기시키는 기념비적 환경의 질을 만드는 것이었다(Halprin, 1988: 42).

헬프린이 설계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인간-사회 상호 작용의 구현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경험을 통해 완성된다. 그의 개념은 루즈벨트 메모리얼에서 더욱 구체적인 실행으로 나타난다. 전쟁으로 파괴된 파편을 형상화한 돌 위에 앉아 답소를 나누는 이용자들은 역사의 공간 안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위로받는다.

IV. 참여를 통한 환경의 지각

시에라 산맥의 자연을 모더니즘의 시각으로 형상화한 <러브조이 플라자>의 외관과 이곳에서 열린 도시민의 ‘걸음’과 같은 일상적 행동을 도시 생명력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안무와 퍼포먼스는 시민이 공공장소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공간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공간을 이용하며 경험하는 ‘일상의 안무’를 통해 도시는 고유의 생태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자연의 은유적 표현과 사람들의 참여가 만났을 때 도시에서 자연이 사람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루즈벨트 메모리얼>을 여러 위계로 나누고 자연스럽게 공간을 느끼게 하는 수경과 벽을 구성하는 ‘수행하는 물과 돌’의 외관, 사용자가 이동하고 만지고 앉아 이야기하며 역사를 공감하는 공간의 의미에 기여는 사회적 공감대 표출의 장으로서의 공공 공간의 역할을 재정의한다. “환경적 경험은 생태 시스템의 추상화와 대상화일뿐만 아니라 생태 시스템의 감각적 촉각적 공간을 통한 인간 움직임의 안무”(Meyer, 2001: 239)이듯, 환경적 참여 예술로서의 조경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보다 많은 상호 의존성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인간은 환경의 일부가 된다. 아놀드 벌리언트(Arnold Berleant)는 “환경 지각은 전체적이지 상호적인 인간의 감각 중추와 영겨 있다.

우리는 신체와 장소의 상호 침투를 통해 환경의 일부로 참여하는 것”(Berleant, 1992: 17-18)이라 말하며 청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한 환경의 지각, 즉 환경에의 공감각적 참여를 이야기한다. “환경의 경험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 양태를 공감각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Berleant, 1997: 32). 인간에 의한, 인간적인 환경의 창조를 구현하려 했던 헬프린의 작업은 “우리를 경관의 구경꾼에서 환경에의 참여자로 되돌려”(배정환, 2004: 198) 놓고 있다.

헬프린은 삭막한 도시에 참여와 휴식의 장소로서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인간적인 장소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자연에서의 영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자연의 조형 원리를 인공 조형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그의 설계는 생태적이다. 이러한 전제론적 접근의 자연관과 이를 도시에 구현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의 참여로 완성되는 ‘문화의 공간’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그는 ‘도시의 생태’를 구축한 작가라 평할 수 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그의 시도는 인간의 실존 장소로서의 대지 위에서 어떻게 인간과 대지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에서의 현상학이 시민들을 통해 장소의 구체적인 경험을 활용하고 그런 경험들이 주기적인 자연적 프로세스를 집단적인 사회적 삶의 리듬과 혼합한다면, 이런 유형의 작업들은 환경의 일부를 의미한다고 재 정의할 수 있다.”(Meyer, 2001: 243). 헬프린은 인간-환경의 상호 작용을 위한 표현적이고 참여적인 방안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인간-환경 이원론이라는 난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헬프린의 프로젝트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자연에의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를 어떻게 도시 환경으로 고개를 돌리게 할 수 있는가?”(Beardsly,

2009: 33)

인용문헌

1. 김덕호(2001)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 비봉.
2. 김진희(1993) 로렌스 헬프린론. 조경학연구 15: 103-134.
3. 김한배(2001) 모더니즘 조경설계에 미친 미술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9(4): 53-66.
4. 민지혜(2010)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으로 본 1980년대 미국 공공미술: 〈기울어진 호〉와 〈베트남참전용사기념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배정환(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서울: 조경.
6. 승현승 저, 박대순 역(1991)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7. 오창송 저, 이규목 역(2000) Lawrence Halprin: FDR Memorial. 현대조경작가연구(2). 누리예.
8. Beardsley, J.(2009) Being in Space in Where The Revolution Began: Lawrence and Anna Halprin and the Reinvention of Public Space. Randy Gragg, eds. Spacemaker Press. pp. 28-34.
9. Berleant, A.(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Temple University Press.
10. Living in the Landscape(1997) Toward an Aesthetics of Environment. University Press of Kansas.
11. Halprin, L.(1972) Cities, rev. ed. MIT Press.
12. The FDR Memorial(1988). Spacemaker Press.
13. Herrington, S.(2010) The Nature of Ian McHarg's Science. Landscape Journal 29(1): 1-20.
14. Lister, N. M.(2007)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in Large Park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ed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34-63.
15. Meyer, E. K.(2001) The Post -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i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ed. Michel Conan.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pp. 187-244.
16. Sustaining Beauty(2008).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A Manifesto in three part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08(2): 6-23.
17. Ross, J.(2009) Choreographing Nature in Where The Revolution Began: Lawrence and Anna Halprin and the Reinvention of Public Space. Randy Gragg, eds. Spacemaker Press. pp. 16-25.